



신년사



전기현 회장

-2008 한해는 양봉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 안전한 양봉산물생산과 벌꿀 판매/소비 촉진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봉정책마련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모두가 소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길 바라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정해년을 보내며 수입소비 지정검역물 고시, 한·미FTA 협상 체결, 벌꿀품질강화를 위한 협회 품질관리업무 개선, 벌꿀에 대한 항생제 기준 추가, 밀수·원산지위반 벌꿀 현장 검거와 같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들이 계속되는 벌꿀 흉작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우리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한 해였습니다.

벌꿀 흉작도 문제지만 벌꿀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과동으로 우리 벌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이미 많이 돌아서 있으며 한번 돌아선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의 땀과 노고의 결실인 자랑스러운 벌꿀이 소비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뒤돌아보고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양관리를 해

야 할 때입니다.

이미 협회에서는 벌꿀홍보를 위해 농림부에 건의하여 임의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임의 자조금을 거출할 것인지 거출방안을 마련하여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벌꿀 홍보는 협회를 주축으로 양봉인, 그리고 유통판매업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벌꿀을 어디다 내놔도 땀땀하고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양봉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안전한 양봉산물생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양봉농가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의 정책사업인 시도단위별 양봉산물 가공공장지원 사업(브랜드화)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소비자들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회의 벌꿀 품질관리 제도개선을 통한 벌꿀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올해부터 식약청의 항생제 기준/규격강화로 인해 자체적으로 항생제 검사기기를 구입하여 2월중에는 설치완료 하여 3월부터는 정상 가동될 예정 있습니다. 일반잡화꿀의 처리문제는 별도의 기준(표기)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부, 식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일반잡화꿀과 관련하여 회원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협회는 궁극적으로 발전적인 양봉산업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는 우리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질타와 조언에 대해 항상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우리의 산업이 퇴보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인습은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합시다.

올해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FTA가 현재 국회비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협회에서는 2007년도에 한·미FTA 협상을 최대 관심사로 여기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 그 어느 농산

물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한·미FTA협상에 이어 한·캐나다 FTA협상, 한·EU FTA협상, DDA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어 중국과의 FTA협상도 추진될 예정이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바, 협회에서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와 대응하여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시장개방 앞에 움츠려 들고, 그저 우리 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개방은 시대적 순리이며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무한히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1차로 양봉농가 등록제를 시행하여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받도록 하고, 이러한 법 제정을 토대로 친환경 방역시스템 구축(약품개발/현 제도개선), 각종 연구사업 등 경쟁력 있는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여 우리 양봉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협회와 함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미래를 모색해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양한 밀원수를 지속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것입니다. 코앞의 문제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더 큰 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곧 우리 양봉의 자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2006년부터 실시하였던 밀원수 식재사업은 중단되었지만 향후 산림청의 정책적 측면에서 시·군 단위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추진됨으로써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아까시나무의 중요성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서 대 단위 기획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양봉인들만 아까시나무의 중요성을 외쳐왔고, 산림청, 산주들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 왔으나 이제는 아까시나무의 장점을 살리는 연구자료와 외국사례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 단위 연구사업(10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학계/산림청 관계자와 공동으로 하는 대 단위 연구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아까시나무의 친자연적인 산림관리기술/목재생산, 아까시나무 환경림 조성으로 육림산업촉진 등을 중점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수입산 벌꿀 밀수, 가짜 벌꿀이 문제가 됨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 벌꿀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구별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고려대학교 교수2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최고 성능의 초고분해능 질량분석기와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벌꿀들을 분석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산지 구별법이 개발·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해외연수교육,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이 계속 실시될 예정이며, 화분 껍질에 관한 연구사업이 농업과학기술원에서 2년차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종 친환경경사양관리(방역/봉독) 등 다각적으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평가회의가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지난 12월에 개최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아시아 국제양봉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협회에서는 전년도부터 학회와 함께 준비를 해왔으며, 금년 중국대회에서도 한국 유치를 위해 정부, 학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협회는 우리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의지와 열정이 가득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구촌의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문제 등 우리에게는 험난하고 도전이 되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 역시 기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협회는 2008년도에는 정부의 정책의 제도마련과 학계의 다양한 연구사업을 부여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사양기술개발 등의 다각적인 방안과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회가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올 한해는 우리 양봉업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화합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2008년에는 대풍작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